

Call of Cthulhu 7th edition fan scenario

[락 VS 신생결투대작전]



w.흑당꿀떡

개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신이 신화생물의 농간에 당해왔던 기간이 말입니다.

값아 먹혀온 이성 - KPC였던 것, 늘어난 크툴루신화 기능치 등 - 을 붙잡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어떻게든 그 녀석들을 혼쭐내주고 말겠어!

그때, 갑자기 KPC가 등에 기타를 메고, 당신의 집 창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PC! 내 손을 잡아!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러 가자고,
락 vs 신생결투대작전의 시작이다!”

네? 뭐라고요? 당황스럽지만 한 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까짓거, 못할 거 없죠!

시나리오 정보

- 크툴루의 부름 7판 팬 시나리오
- 인원: 일대일 (다인 개변 가능 및 권장 - 밴드인만큼 인원이 늘어날수록 즐거울지 모릅니다.)
- 배경: 현대에서 가까운 미래까지
- 플레이 타임: 3시간+α? (RP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천 PC: 신화생물에게 많이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에게 꿰리지 않을 강따구가 있다. / 락커의 소울이 흐른다.
- 추천 KPC: 신화생물에게 많이 당했다. 인간도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 락커의 소울이 흐른다.
- 개연성이 우주로 갑니다. 정말 신화생물과 락으로 싸웁니다. 락네버다이.

주의사항

- 인원 수, 제목 일부 ('OO결투대작전'의 OO), 엔딩 등 개변이 자유롭습니다. **특히 맞서 싸우는 신화생물에 대한 개변을 적극 권장합니다.** (ex. 락vs니알라결투대작전, 락vs심해인결투대작전) 그러나 개변한 시나리오를 재배포하지는 말아주세요.
- **B급 개그 액션 패러디물**입니다. PC와 KPC의 캐릭터 붕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당탕탕 얼렁뚱땅 시나리오라도 괜찮은 PL에게 추천합니다.
- 본 시나리오를 '펠프 크툴루'로 개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 신화생물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과 창작 주문, 신화서가 존재합니다. 메타개그적인 부분이 있으며, 신화생물이 개그적으로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찮으신 분만 플레이를 고려해주세요.
- 시나리오에서 모든 장면 묘사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키퍼가 **즉석에서 묘사**를 해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납득되지 않으면 안되는 분은 플레이어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개연성이 우주로 갔기 때문입니다.
- 영화 ‘백 투더 퓨처’, ‘터네이셔스 D’ 등의 **다양한 오마주**가 들어가있습니다. 특히 영화 ‘터네이셔스 D’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품들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 룰북을 소지하지 않은 채로 키퍼링하는 것은 삼가해주세요.

...

- 사실 선량한 신화생물도 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신화생물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아래로 진상이 이어집니다.

진상

사실 진상이랄 것도 없습니다.

락ROCK은 신.생까지 이긴다. 그뿐입니다.

PC와 KPC는 지금껏 신화생물들에게 다양하게 당해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PC에게 제일 크게 고통을 줬던 신화생물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뿐이니까요.

한 오컬트 서적을 읽고 신화생물을 이길 방법은 오직 ROCK뿐이라는 결론에 도출한 KPC는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자동차를 개조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를 개조해서 무언가 기상천외한 걸 만들어내는 건 영화 백투더퓨처의 오마주입니다. 이건 무려 우주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이죠! 어떻게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냐고 한다면... 글썄요, 미고들과 협력을 했단든지, 아무튼 그런 개연성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인간과 신.생의 세기의 결투가 일어날 결투장은 바로 우주에 있습니다. 거기서 PC와 KPC는 신.생에 맞서 락 대결을 하게 될겁니다. 왜 우주냐고요? 왜 락이냐고요? 맥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대충 음악의 힘으로 신.생을 압도하거나, 락의 화신(아래에 뭔지 나와요)을 소환하면 두 사람의 승리입니다.

싸우세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세요!

※ 본문은 서술과 키퍼 도움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입

*PC가 집에서 쉬고 있음을 가정하고 서술하였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페어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개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는 서술 예시입니다. 자유로이
변형해주세요!

오늘은 휴일입니다. PC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쉬고있을까요?

(PC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음. 그렇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날입니다. 아니, 평화롭나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다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그 녀석에게
당한지 얼마나 되었더라.

그래요. 분명… (지난 세션에서 신.생으로 인해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 이성이 간당간당...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인 듯 합니다.

이것이 탐사자의 삶인가…

제일 심하게 당신을 괴롭혔던 신화생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떠올리면, 혹은 그때 일을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여기서의 연출은 최대한 아련하고 서글프게 해주세요. 아, 이제는 볼 수 없는 KPC의 사진... 아, 신.생때문에 빼앗겨버린 내 돈과 명예...

PC에게 물어봅시다. 그리고 PC가 적당히 대답하면...

기타를 맨 사나이

PC는 왠지 모를 기묘한 감각을 느낍니다.

왠지, 고개를 돌려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뭔가가...일어날 것 같다는 묘한 충동입니다.

이 상황을 바꿔줄 뭔가가...

바로 그때.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바람이 휘이잉하고 불어옵니다!**

(벌컥 열린 게 아니라 와장창하고 깨고 출연시켜도 괜찮습니다. 뒷수습을 할 수 있다면야...)

- 거실에 있었다면 베란다 문이, 방 안에 있었다면 창문이, 둘 다 애매하다면 땡땡-하고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복도 너머에 차가 뚱뚱 떠있었다는 식도 좋습니다.
- 방충망이나 창살은 어디갔냐고요? ...만약 근처를 둘러보는 PC가 있다면 근처에 그것들로 보이는 잔해 비스무리한 게 놓여있다고 해주세요.
- *만약 초면, if, au, 환생 기타 등등이라면, KPC가 “당신은 락의 화신으로 선택받았습니다!!”하면서 와장창-! 하고 창문 깨지는 소리와 함께 튀어나옵니다.

“PC! 내 손을 잡아!”

뭐야? 뭔데?하고 보면, 공중에 웬 빨간색 스포츠카가 둥둥 떠있고, 그 안에 KPC가 타서 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C가 아주 놀란다면 [이성] 판정입니다. (0/1)

조수석 문이 활짝 열려있고, KPC는 비장한 표정으로 PC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관찰] 판정을 한다면 - KPC가 등 뒤에 일렉기타를 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렉기타가 아니라 베이스나 다른 악기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웬지 보통 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할지도요. 차가 하늘을 날고 있는걸요!

KPC?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PC가 외친다면 KPC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러 가자고,
락 vs 신생결투대작전의 시작이다!”

이게 대체 뭐라는거죠…?

그때, 운전석에서 어떤 사람이 안경을 속 밀어올리며 말합니다.

“흠, 오차 발생 범위 0.012874 퍼센트. 조금 늦어도 괜찮겠는걸요.”

- 운전석의 사람

: 탐사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친구, 키퍼의 오너캐 등 누구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도움을 주는 범상치 않은 조력자 역할로 존재합니다. NPC 데이터는 마음대로 해주세요. 만약 다인으로 개변한다면 KPC가 운전석에 앉아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도 KPC는 일단 시간이 없으니 타라는 대답만 해줍니다.

(ex. 일단 타라, 탄 다음에 다 설명해주겠다.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 너는 몸만 따라와라.)

KPC의 손을 잡나요? 일단 어떻게든 KPC가 PC를 데리고 가려하긴 하지만요.

잡는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해도 절대로 기어코! 잡지 않는다면 엔딩3으로... 갑니다만, 웬만하면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가 끝나버린다고 언급하면서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신생결투대작전

Masayoshi Takanaka - Speed of Love <https://youtu.be/AcBm6qynqrs>
https://youtu.be/f_eo3m4J5v4
ac dc – highway to hell <https://www.youtube.com/watch?v=ikFFVfObwss>

네? 뭐라고요? 당황스럽지만 한 편으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까짓거, 못할 거 없죠!

당신은 KPC의 손을 잡습니다. KPC는 그 손을 강하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당신의 허리에 손을 둘러 순식간에 당신을 차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어느새 철커덕, 하고 안전벨트가 매어집니다.

“출발합니다!”

NPC가 앞을 보면서 소리치는 게 들립니다. 정말로 출발하려나봅니다. 차는 부릉부릉하고 시동이 걸리더니 하늘 위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KPC는 이제서야 PC의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디하게 진행해주세요. 얼른 우주로 가야하니까요. 우주로 가는 게 개연성보다 늦으면 큰일납니다. 빨리빨리!

- 락vs신생결투대작전이 대체 뭐야?

- 그건 ‘**신**성하고도 **화**딱지나면서 **생**생하게 **물**경거리는 녀석들’과 락(**ROCK**)으로 결투하기 위한 비밀 대작전이라고 대답합니다.
- 그 녀석들과 락 배틀을 할거다. 대결 장소는 우주다.
- “우린 우주로 갈 거야. PC!” (네?)

- 이 차는 도대체 뭐야?

- 우주로 갈 수 있는 스포츠카다. 내가 직접 개조했다. (혹은 운전석에 있는 저 친구랑 같이 개조했다)
- 평범해보이지만, 마하의 속도로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첨단 기술로 차 안에서는 우주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 걱정하지 마라. 우주로 갈 때 차가 불타지는 않을 거다. ...아마도. 하지만 차가 불타는 것도 꽤나 ROCK하지 않나?

- 어째서... ROCK?

- **그건, 우리의 삶이 ROCK이니까.** (똥단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주로 간다고요?

PC가 그렇게 물으면 KPC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왜인지는 묻지 마. PC. 이건 그런 이야기야. 개연성이 우주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린 개연성보다 빠르게 우주로 간다.”

꽈 잡아!

Judas Priest - Breaking The Law <https://www.youtube.com/watch?v=L397TWLwrUU>

“우주 공간으로 돌입, 카운트다운 10, 9, 8, ...”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운전석에 있던 NPC가 어째 멍한 표정으로 입을 뗍니다.

“아, 근데 저 면허 없어요.” / “저 근데 장롱면허예요.” / “운전은 역시 화끈한 게 좋죠?”

뭐?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이 와중에도 차는 피유우우웅하고 총알같이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자동차 운전] 판정**을 할 사람을 정합니다.

1. 운전석에 앉은 NPC가 한다. (따로 데이터를 넣지 않았다면 기본치 20입니다.)
2. KPC를 운전석에 앉힌다.
3. PC 앞에 운전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4. 셋이서 같이 한다. (뭐 어때요, 재밌잖아요.)

[3, 4의 경우]

정신을 차려보면 운전석이 아니라 당신이 앉은 조수석 앞 좌석에 핸들이나 뭔가 수상쩍은 버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멀쩡한 차도 아니고, 개조된 판에 별로 상관 없지 않을까요?)

“PC! 얼른 핸들을 잡아!”

[자동차 운전] 판정입니다.

- 성공 시 : 붉은 스포츠카는 마하의 속도로 하늘 위를 향해 수직상승하기 시작합니다.
- 실패 시 : 차는 허공에서 몇바퀴 공중제비를 돕니다. 그 짧은 순간, 옆에 타고 있던 KPC가 몸을 휘청이며 PC의 쪽으로 기우뚱하는 게 보입니다.

[민첩], 혹은 [근력] 판정입니다. 실패하면 옆에 타고 있던 KPC에게 눌러서 짜부가 됩니다.

으뵘!

이 경우 1d4를 굴립니다. 1 - 가슴팍, 2- 옆구리, 3 - 얼굴, 4 - 엉덩이

굴린 숫자에 해당되는 KPC의 신체 부위에 얼굴이 파묻히게 됩니다. 얼굴이었다면 강제 입술박치기(말그대로)가 되겠네요. 엉덩이는... 힘내요.

*앞서 했던 민첩or근력 판정이 대실패(뽀뽀)였을 경우에는 체력 -1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인지 왠지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집단 운 판정입니다. 가장 운이 낮은 사람이 [운] 판정을 합니다. (따로 데이터를 넣지 않았을 경우 NPC의 운은 50입니다.)

- 성공 시: 창 너머로 차에서 열기가 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행히 불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 실패 시: 와! 차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운석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핫뜨거! 핫뜨거! KPC와 NPC는 “나는 불이 무서워~ 이걸 너무 뜨거워~”라든지, “앗 뜨거워! 핫뜨거워~” 같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으아악!! 이 녀석들아, 차가 타고 있다고!!

그리고, 무언가 ‘번쩍’ 하더니.

PC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찔해지는 감각을 느낍니다.

[정신력] 판정입니다.

- 성공 시: 실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가 정말 굉장한 속도로 하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주변 풍경이 눈으로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찔한 감각과 함께 다시 반사적으로 눈이 감깁니다.
- 실패 시: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쩐지 멀미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우주여행

Hot Patootie - Bless My Soul <https://www.youtube.com/watch?v=05ByiM97qDc>
Dreamscape - Silent Maze

5 Hours of Relaxing Psychedelic Space Rock - Travel Dos <https://youtu.be/ors0wpcVDcc>

차는 거센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크게 요동칩니다.

눈을 감기 전에 봤던 풍경은 푸른색, 붉은색, 하얀색이 번쩍번쩍거리며 시야를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론가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

심장이 쿵하고 뛰는 느낌과 함께 눈을 떠보니, PC는 어느새 자동차가 정말 우주를 날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주변이 온통 검은 색...일 줄 알았는데 라떼 색이 섞여있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산소는요? 숨은 쉴 수 있는 건가?

놀랍게도 쉴 수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첨단 기술로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차에 덧씌워져 있어서 산소 공급을...뭐...그런가 봅니다.

PC가 깊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ROCK**한 차라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시나리오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셔도 됩니다.

밖을 내다보면, 와, 신기합니다. 우주복을 입은 눈이 크고 검은 초록색 외계인이 뚱뚱 떠다니는 게 보입니다. 우주 공간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PC가 신기해하며 [관찰] 판정을 한다면

: 어, 저 멀리에 있는 저건 뭐죠? 창 너머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포메라니안이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정말 만약 PC가 포메라니안을 더 가까이서 보고싶어 한다면

- 작은 털뭉치는 자동차 창문 근처로 뽀뽀하고 다가와서 귀여운 포즈를 몇 번 취해준 다음에 우주복에 적힌 '우주왕왕이망망비행명명단체'의 로고를 보여주곤 다시 헉헉거리며 떠나갑니다.
- PC가 포메라니안과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멍멍이는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는 이후부터 밴드의 마스코트가 됩니다.

KPC도 NPC도 한시름 놓았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봐, PC.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 녀석들에게 당해왔는지...**이젠 복수의 시간이 온 거야.**”
(KPC는 대충 이전 세션에서 PC와 KPC가 신.생에게 당했던 사건을 말하며 눈물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KPC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이때 PC, [관찰력] 판정입니다.

- 성공: KPC의 가방에 책이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아주 얇은 악보집인 것 같고, PC는 처음보는 물건입니다.
- 실패: KPC의 가방에 무언가 빠져나와있는 게 보입니다. 책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도 KPC는 중요한 책이라고만 대답해줍니다. 끈질기게 물어본다면 대답해주되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시켜주세요.

KPC가 가지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 Rhapsody of Heaven & Hell]

영어, 저자 미상, 1970

어느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아컴 출신 보컬리스트가 작곡했다고 하는 악보입니다. 크기는 B4 사이즈 (364×257mm) 정도입니다. 밴드의 해체 이후 시애틀의 락 밴드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돌고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찌는* 곡조와 기타 리프, 거칠고 복잡한 악보 때문에, TV 쇼에서는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이성 손실: 1D4

오컬트: +5/+10점

신화(오컬트) 지수: 12

본격적 연구: 2주

주문: 락 배틀(음악의 결투),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불의의 대항자 소환), 다가오는 어둠의 거부

- KPC는 이 책을 우연히 얻었습니다. 또한, 책 내의 주문들을 이미 습득한 상태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책을 얻고, 이런 기상천외한 생각(신화생물과 락배틀)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필요하다면 키퍼가 자율적으로 정해주세요.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이런 뒷설정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거다.’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은 신화서가 아니라 오컬트 서적입니다. 수호자 룰북 178p에 제시된 신화 외부의 마법이 들어있습니다. 주문에 대한 설명은 밑에서 서술됩니다.

은하의 결투장

Metallica - Jump in the Fire

점차, 우주 공간에서 어떤 커다란 '경기장' 비슷한 것이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동차는 천천히 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커지네요. 마치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 거대한 스타디움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듯 해보입니다.

그 스타디움의 입구에 자동차가 도착합니다. 우주에 있으니 어쩐지 스타워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입구 안으로 더 차를 몰고 들어가면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문이 닫히고, 주차장이 나옵니다.
거대한 스타디움 안에 또다른 스타디움이 있는 형태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관찮은지 NPC는 차를 주차시키고 문을 엽니다.

밖으로 나오면, 아, 위에 드넓게 펼쳐진 우주 공간이 보입니다.
반짝거리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감탄스러운 풍경이네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 너머로 정말 스타디움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보입니다.

스타디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무언가 접수처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기다란 장의자들이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 사람들...이겠죠? 우주복은 입고 있지 않네요. 몇몇은 입고 있지만요.

OOO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핑크옷, 고스옷, 등등)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PC가 주위를 살펴본다면

: 일단 이곳은 접수처처럼 보이는데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그 옆에 나있네요. 준비/대기실이라고 적힌 화살표가 벽에 붙어있습니다.

[듣기] 판정 시

: "그래서 오늘 결투가 열린다면서?"

"그런다고 한다! 이것이 우주의 진정한 결투! 락 결투인 것이다!"

"흥미롭네...과연 승자는 누가 되려나..."

[관찰] 판정 시

: 대형 스크린 TV에서 오늘 있을 락 배틀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듣기 판정 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PC와 KPC (그리고 NPC가 포함된다면 NPC도) 의 이름이 커다란 글자로 스크린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접수처로 간다면

: "어머! 오늘 주인공들 아니세요!"

접수원이 아는 채를 합니다. "스페이스10 뉴스 봤어요. 결투장을 내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기실은 저쪽이라고 말해줍니다.

밴드 결성

통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다보면 PC와 KPC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대기실 방 문 앞에 도착합니다.

방 안쪽에 들어가면 잘 정돈된 대기실 내부가 보입니다. 벽에는 둥그런 조명들이 밝게 빛나는 거울이 있고, 분장실처럼 화장대에 이런저런 화장도구들이 놓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 뒤에는 기다란 소파와 둥그런 탁상이 놓여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작은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문이 하나 나 있는데, 아마 저기가 스타디움 중심으로 향하는 통로 문일까 싶기도 하네요.

KPC가 일단 옷을 갈아입으라고 작은 방 안에 PC를 밀어넣고 커튼을 쳐줍니다. 방 안에는 마치 의상실처럼 다양한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PC가 옷을 찾는다면 1d5입니다.

1: 고스룩 / 2: 핑크룩 / 3: 라이더 가죽자켓 / 4: 프릴달린 아이돌옷 / 5: 청바지에 청자켓
--

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PC가 원하는 다른 옷을 찾을 수 있게 돕니다.

이후 KPC와의 대화

- 좋아. 스테이지에 올라가면 내 리듬에 맞춰서 연주(혹은 노래)해줘. 그게 우리의 원수를 이길 방법이야.
-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잘 할 수 있을거야! (그럼!)
- 악보는 이걸 보면 돼.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꼭 익힐 필요는 없어. 무대에 서면, 저절로 연주할 수 있게 될거야.
- 밴드 이름이랑 포지션? 지금 정하자!

“그럼 일단 포지션이랑 이름을 정해볼까!”

포지션 선정

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지션이 중요하겠죠.

PC와 KPC는 각자 어떤 악기를 연주할 것인지 정합니다.

[보컬 / 기타 / 베이스 / 키보드 / 드럼]

만약 여기에 없는 악기라면 적당히 개변해주세요.

밴드 이름 짓기

“팀 이름은 뭘로 할까?” KPC가 묻습니다.

논의해서 괜찮은 팀명을 정해주세요. sns에서 돌았던 인디밴드식 이름짓기처럼 정해도 됩니다.

(입고 있는 하의 색깔 + 마지막으로 먹은 것)

PC가 정말 고민한다면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작명 표가 있다고 하고 1d10을 두 번 굴려달라고 하세요. (그냥 재미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나온 단어를 합친 것을 이름으로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PC가 이게 뭐야!!!한다면 그대로 기각입니다.

<1d10 두 번 굴리기>

첫 번째 단어	1: 라떼(는) / 2: 체리맛 / 3: 빵모자 / 4: 마린룩 / 5: 핑키 / 6: 놀고먹는 / 7: 빙글빙글 / 8: 천국의 / 9: 크레이지 / 10: 널부러진
두 번째 단어	1: 순두부찌개 / 2: 스타즈 / 3: 알파카 / 4: 발키리 / 5: 플라티나 / 6: 노란장판 / 7: 러브크래프트 / 8: 철수 / 9: 고슴도치 / 10: 건담

※ 다음은 라이터가 테스트플레이 때 제안했다가 PC에게 단칼에 거절당한 팀명 목록입니다.

- 블랙 서바이벌 데빌 록
- 오렌지 사냥꾼
- 흰색 황야의 거친 망아지들

아무튼간에 이름이 정해지면 KPC는 다같이 손을 모으고 화이팅을 하자고 합니다.

“자, 모두들! 힘을 모으자!”

“(팀명)!! 에이, 에이, 오!!”

모두가 손을 아래로 위로 가볍게 움직였다가, 오~!라고 할때 위로 팔을 듭니다.

정말로, 뭔가 결성되었습니다...(팀명)이라는 밴드가요…!

이길 수 있는 필승법

나가기 전 할 일이 있다면서 KPC가 PC에게 들고 있던 책을 건넵니다. 그 안에는 악보가 들어있군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필승법이야.”

그리고 책에 들어있던 주문 두 개를 알려줍니다. PC는 KPC에게서 다음 주문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은 야매로) 익힐 수 있습니다.

핸드아웃: 주문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 (갱신 전)

비용: 이성 1d10 (시나리오에서는 술자인 KPC가 지불합니다.)

시전 시간: -

이 주문을 시전하기 위해서는 붉은색으로 그려진 오망성 五芒星 위에서 열과 혼을 다해 끊임없이 악기 연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한 마력의 총량이 주문의 성공 확률이 됩니다.

[??????????] 판정에 보통 성공 시 마력 5가, 어려움 이상 성공할 시 마력 10이 추가로 더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단, 이때 쓰이는 악기는 축성된 악기여야 합니다. 소환에 들어가는 마력은 99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주문 시전에 성공하면 ‘불의의 대항자’, ‘락의 화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존재를 물리칠 수있는 힘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 불의의 대항자 소환, 락의 화신(化身) 소환

핸드아웃: 주문 “다가오는 어둠의 거부”

주문 <다가오는 어둠의 거부>

비용: 마력 1; 이성 1

시전 시간: 즉시

이 주문은 '락 스타디움'이라는 장소 안에서, '음악과 관련된 물건'을 매거나 들고 있을 때만 시전 가능합니다. 찌렁찌렁한 소리를 내지르며 마법의 주문 또는 구호(직접 정하세요)를 세 번 외우면 우주에서 온 것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효과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상대의 다음 판정에 사용되는 특성/기능치가 일시적으로 20 낮아진다.
- 상대의 다음 판정 기준치가 1 낮아진다.
- 상대는 이번 라운드(혹은 다음 라운드)에 주문을 쓸 수 없다.

다른 이름: 세 번 외치는 거절, 강렬한 비트의 속박

“이 주문이 있으면, 승산이 있어.”

“락으로... 그 녀석들에게 대항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배틀의 시간이 되었다는 알림이 울립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원수 등장

Black Sabbath - Into the Void <https://www.youtube.com/watch?v=ArKjzyC7RI>

정말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나가볼까요? 스테이지를 향해서.

두 사람은 어둡고 검은 통로를 향해 걸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앞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PC는 밝은 빛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갑니다. 소리가 주변을 뒹뒹 올리다가, PC가 드넓은 광장에 첫 발을 딛음과 동시에 이 거대한 스타디움에 함성소리가 가득 찹니다. 귀가 멍멍해집니다.

... .. 와... ..! 와아... !! 와아!!! 와아아!!!!!!

세상에, 온 관중석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깨알같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셀 수도 없지만, 이정도라면 5000명...아니, 만명은 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지 않은 PC는 이성판정입니다. (0/1)

넓은 광장에는 잔디가 심어져있고, 두 개의 커다란 무대가 만들어져있음이 보입니다. 무대들은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조명이 쏘아지고 있고, 카메라가 달린 최첨단 드론들이 주변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거대한 전광판에 PC와 KPC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이 한 세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KPC는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무대 위입니다.

무대를 살펴본다면 - 무대 위에는, 기타와 드럼, 스탠드 마이크, 베이스, 건반피아노가 놓여있습니다. (KPC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까 정한 포지션에 맞는 악기 앞에 섭니다.)

또, 무대 바닥에 붉은 색으로 오망성이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팀명)의, 최초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렀을까요.

드디어 반대편 입구에서 당신의 ‘숙적’, [신화생물]이(가) 나타납니다.

- 인간 정도의 크기라면 적당히 검은 로브를 입히고 등장시켜주세요. 이성판정은 이따가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크툴루처럼 크기가 큰 신화생물이라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주변에 있던 스피커에서 그것의 소리만 들립니다.

카메라 앵글이 신화생물을 정면으로 한 번, PC와 KPC를 정면으로 한 번 찍습니다. 양측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KPC가 바로 옆에 있던 스탠드 마이크를 붙잡고 한쪽 손을 쭉 뻗어 그것을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허공을 가리킵니다) 도전적으로 손가락질하는 KPC의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너에게 락 배틀을 신청한다!!”

핸드아웃: 주문 “락 배틀”

주문 <락 배틀>

비용: 마력 2, 이성 1d4

시전 시간: 즉시

정신력으로 대상과 대항 판정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단, 술자가 정신력을 영구적으로 5점 지불하면 주문을 자동으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은 도망칠 수 없으며 술사와 ‘락(ROCK)’으로 대결을 해야만 합니다. 승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이 대결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 음악의 결투

KPC의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리자, 그것이 바닥에 발을 구르고 분한 듯 큰소리를 냅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웅웅 울립니다.) “젠장! 락 대결은 거부할 수 없다!”

KPC가 비장하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기면 다시는 우리 곁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신화생물에게 대결의 보상으로 뭔가 요청합니다. 내 논문 대신 써줘! / 잃어버린 PC의 이성 내놔! / 네가 가져간 00 다시 돌려줘 등)

(*라이터가 진행한 테스트플레이의 경우, 이전 세션에서 PC의 기억을 빼앗아갔던 미고를 불러 다시 PC의 기억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당신과 KPC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기면?”

서글픈 기타 연주와 함께 KPC가 대답합니다.

희생형 KPC, 소관 등 : *나를 니알라에게 데려가도 좋아...*

협관, 티격태격 싸우는 관계 등 : *탐사자를 니알라에게 데려가도 좋아...*

아니 이 녀석이 뭐라고요?

좋다!!

락으로 대결이다!

PC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온 사방에서 중독적인 기타리프가 연주되고 불꽃이 쏘아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젠 물릴 수 없습니다…!

ROCK NEVER DIE

Dio - Metal Will Never Die <https://www.youtube.com/watch?v=uBRsr7AAVbo>

Tenacious D - Beelzebass (The Final Showdown) <https://youtu.be/7BkxsdESz4g>

Rhapsody of Fire - Triumph for My Magic Steel <https://www.youtube.com/watch?v=TbVnjcXpppI>

Judas Priest - Painkiller https://www.youtube.com/watch?v=kO_EdmtR5Ck

*System Of A Down - Chop Suey! <https://youtu.be/CSvFpBOe8eY>

확의 힘으로 신.생을 무찔러봅시다. 락! 네버! 다이!

키퍼가 생각하기에 가장 룡한 (가슴을 울리고 이게 딱이다! 싶은) 락 브금을 틀어주세요.

드디어 신화생물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은 망토를 덮어쓰고 있었다면 축수(?)를 뺏어 걷어냅니다. 목소리만 등장했었다면, 쿠구구구궁...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발을 딛고 있던 땅이 흔들리면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독적이고 신성하고도 불길하고 생생히 꾸물텅거리는 녀석을 본 PC, [이성] 판정입니다.

추가적인 묘사는 해당 신화생물의 생김새에 따라 해주세요.

또한 룡복을 참고하여 **해당 신화생물에 따른 이성판정 및 이성감소**를 진행해주세요.

만약 광기에 걸려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괜찮아요, PC. 일단 해봅시다.

- 필요하다면 크툴루의 부름 수호자 룰북 167p의 ‘광기 속의 통찰’을 참고하세요.
- 만일 PC가 크툴루 신화로 인해 처음으로 광기에 빠지게 되었다면 161p ‘광기와 크툴루 신화’를 적용하세요.
- 154~155p ‘광기의 발작’ 부분을 참고하여 탐사자의 백스토리를 살짝 수정하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적당히 락 관련된 걸 끼워넣어주세요. (물론 상호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PC가 광기에 빠진다면 광기의 발작 - 실시간 표를 적용합니다. 랜덤으로 굴리기보다는 키퍼가 공포증이나 집착증을 넣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착증의 경우엔 ‘음악광’을 넣어도 재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PC에게 광기는 오히려 힘입니다. 간다!

❖ 펄프 크툴루 개변 시

만약 PC, KPC 둘 중 한 명이 광기에 걸렸다면 펄프 크툴루 룰북의 77~78p 광기 재능을 하나 선택하세요. 추천은 19~20번인 ‘광기의 기능 강화’입니다. 예술(음악) 판정을 광기로 강화시키면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KPC는 일렉기타(총)를 내세웁니다.

기타의 끝부분에서 레이저빔이 발사됩니다. 와!

(어쩌면...이렇게 생겼을지도요. <https://youtu.be/cTDK5Bluh5A>)

악기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가호 핸드아웃이 공개됩니다.

핸드아웃: 우주의 가호

PC와 KPC는 '예술(일렉기타), 예술(베이스), 예술(드럼), 예술(건반악기), 예술(노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원한다면 NPC도 참여시킵시다.

해당 시나리오 한정으로, PC와 KPC는 (해당한다면 NPC도) 우주의 힘을 받아 **해당 기능치가 1d50+50만큼 생깁니다.** 주사위를 굴린 후 시트에 기입해주세요.

시나리오에서 상정한 악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주사위는 탁에서 싸우게 되는 신화생물에 따라 살짝 조율할 수 있습니다.) PC 당 하나의 악기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핸드아웃: 악기 선택

예술(일렉기타)	기타입니다. 기타 속주를 하면 기타 윗부분에서 빔이 발사되며 피해를 1d10만큼 줍니다.
예술(베이스)	베이스 기타입니다. 리듬감 있게 현을 튕기면 피해를 1d8+2만큼 줍니다.
예술(드럼)	드럼입니다. 미친듯이 스틱으로 드럼을 두드리면 피해를 2d6만큼 줍니다.
예술(건반악기)	원하는 건반악기가 생겨나있습니다. 현란한 연주를 하면 피해를 1d6만큼 주고 어려움 이상 성공했을 시 동료의 체력을 1 회복시킵니다.
예술(노래)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샤우팅을 하면 피해를 1d10만큼 줍니다.

결투방법

1. 정직하게 데미지를 주어 신생을 쓰러트린다. (의식x)
2. 주문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으로 의식을 수행하여 락의 화신을 소환한다.

기본적으로 상정하기로는 악기 연주로 데미지를 주며 버티다가, 최종적으로는 락 에너지를 모아 락의 화신을 소환하는 것(2번 방법)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그냥 악기 연주로 주는 데미지로 쓰러뜨려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지문을 즉석으로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KPC의 기타 연주가 울려 퍼지자, PC는 어떤 연주를 해야 할지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요, 아까 그 악보대로만 연주하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동시에 핸드아웃이 갱신됩니다.

핸드아웃: 주문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 (갱신)

주문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

비용: 이성 1d10 (시나리오에서는 술자인 KPC가 지불합니다.)

시전 시간: -

이 주문을 시전하기 위해서는 붉은색으로 그려진 오망성 五芒星 위에서 열과 혼을 다해 끊임없이 악기 연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비한 마력의 총량이 주문의 성공 확률이 됩니다. **‘예술(일렉기타), 예술(베이스), 예술(드럼), 예술(건반악기), 예술(노래)’ 판정에 보통 성공 시 마력 5가, 어려움 이상 성공할 시 마력 10이 추가로 더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단, 이때 쓰이는 악기는 축성된 악기여야 합니다. 소환에 들어가는 마력은 99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주문 시전에 성공하면 ‘불의의 대항자’, ‘락의 화신’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이름: 불의의 대항자 소환, 락의 화신(化身) 소환

KPC는 주문에 따라 이성 1d10과 마력을 소모합니다. PC와 NPC(있다면)도 KPC를 도와 추가로 마력을 소모하여 주문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락 배틀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신화생물과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PC의 예술(악기) 판정이 어려움 이상으로 성공하여 락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대로 kp는 지문으로 안내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ex. 락의 에너지가 65% 채워졌습니다!)

이벤트: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The Final Countdown | Europe

HP가 0이 되고 응급처치에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PC의 가족, 지인, 친구, 직장 상사, 하비 등이 나와서 한마디씩 응원을 하고 들어갑니다.

“일어나! 넌 탐사자의 자존심이야!”

“어서 일어나! 빨리!”

“OOO(탐사자 이름)!”

우주의 힘을 받아 특별히 hp가 모두 회복되고 회생합니다. 이 이벤트는 PC와 PL의 불타오르는

의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묘사는 마스터가 잘 바꾸어주세요.

그럼에도 이후 마스터가 봐주기 힘들만큼 PC나 KPC가 계속해서 사망한다면, PL과의 협의를 통해 엔딩 1로 향합니다.

소환

락의 에너지가 충분히 모였다고 생각했을 때, KPC의 붉은 일렉기타가 중독적인 리프를 연주하며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가 휘몰아칩니다.

PC의 연주와 함께, '락의 화신'을 부르는 의식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이다!!"

주문 시전에 성공하면 거대한 락의 화신이 소환됩니다. (생김새는 아주 거대한 손과 같습니다.)

- 만약 주문 시전 굴림에서 100이 나오면 러브크래프트나 하비가 소환됩니다. (크툴루의 부름 수호자 룰북의 그분 맞습니다.) 어느 쪽일지 1d2로 정합시다. 그 후 일어나는 일은...수호자에게 맡깁니다.
- 하비였을 경우, 그는 app90의 미모로 살인 미소를 지어주고는 사라집니다.
- 어찌됐든 락의 화신과 같은 효과를 주긴 할겁니다. 아마도.

이후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클라이막스

쿠구구궁하고 어마어마한 굉음이 울려퍼집니다. 우주 공간이 찢겨지는 것 같더니, 집 한채보다 거대한 검은 손톱이 공간을 찢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여러분의 숙적인 그것을 짜부러트려버립니다.

“지금이야! 마지막 일격을 날리자!”

소환과 동시에 PC의 몸에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밝고, 빛나면서, 성스럽기까지 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크게 호흡합니다. 폐가 크게 부풀어올랐다 가라앉습니다. 심장이 고요히 뛰는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연주입니다!

PC는 보너스 주사위를 두 개 받고 마지막으로 [예술(악기)] 판정을 합니다.

파아아아아-!!

모두의 연주가 하나로 모여져서, 거대한 손에 압도당해있던 신.생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먼지처럼 뿔뿔히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PC의 연주소리(샤우팅)가 마지막으로 울려퍼짐과 동시에, 찢겨진 우주 공간에서 빛이 나더니 맑고 푸른 하늘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척이나 밝은 빛이 무대 위에 있는 모두를 비춥니다.

“크아아아악!!”

그나마 남아있던 ‘그것’의 잔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빔을 맞고 단말마를 내지르며 타닥타닥 타들어가면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덩달아 소환되었던 락의 화신도 사라집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축축합니다. 스피커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잠시간의 적막이 흐르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뚫, 떨어짐과 동시에.

“와아아아아아!!!!!!!!!!”

주변에서 굉장한 함성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이제서야 강하게 느껴집니다. PC는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옆을 돌아보자, KPC 역시 땀에 폭 젖은 모습입니다. 그는 악기를 쥔 채로 숨을 크게 몰아쉬며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방에서 비춰지는 조명이 밝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환호성에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아, 정말로 끝났습니다...

신.생을 무사히 물리쳤다면 엔딩 2로 향합니다.

엔딩

엔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1: 신.생과의 싸움에서 우주의 힘을 받았음에도 hp가 0이 되었다.
- 2: 신.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 3: 도입부에서 KPC를 따라가지 않았다.

1. 아 뭐야 꿈

: 신.생과의 싸움에서 우주의 힘을 받았음에도 hp가 0이 되었다.

굿모닝~ 땡땡땡~

헉! 눈을 떠서 몸을 벌떡 일으켜보니 PC는 자신이 침대에서 방금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옆에서는 익숙한 알람음이 울리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꿈이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개연성이 설명됩니다. 꿈이었다고요?

음, 하지만 즐겁지 않았나요? 꿈이었어도 어쨌든 이긴 기분일겁니다.

오늘 들을 아침 음악은 메탈 어때요?

PC 생존 KPC 생존

엔딩보상: 이성회복 1d4 / 신나는 꿈을 꿔던 기억

2. 인간승리

: 신.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Red Hot Chili Peppers - Dark Necessities <https://youtu.be/cGl7v2tBVE8>

활짝 웃는 KPC와, PC의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의 청춘 드라마처럼 통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맞잡은 축축한 손과, 울려퍼지는 심장 고동.

그렇게, PC와 KPC의 뒷모습과 함께,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신.생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승리입니다. 축하해요! 락 네버 다이!

PC 생존 KPC 생존

엔딩 보상: 이성 회복 1d10 (또는 신화생물을 보고 이성 판정했던 주사위+10만큼) (탁에 따라 조율) / 신화생물에게 보상으로 요청했던 것 / 오컬트 서적 '천국과 지옥의 광시곡' / 락의 소울

예술(탐사자가 선택했던 악기/보컬) 기능치는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하우스룰을 넣어서 해당 기능치의 항상 판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 엔딩 보상으로 얻는 주문과 오컬트 서적은 다른 세션에 가져갈 시 세션의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kp와 충분히 상의 후 처리를 결정해주세요.

3. 그런 건 없었다

: 도입부에서 KPC를 따라가지 않았다.

초장부터 KPC를 거절하다니. 안타깝게도 PC는 이런 막장 시나리오에는 어울리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런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지도요.

힘내세요, KPC. 힘내세요, 키퍼!

KPC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등에 기타를 매고 도로 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저 차를 탔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잘가, KPC!

그 녀석이 하늘에 떠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들이닥쳤다든지, 신생결투대작전이라든지 하는 건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그냥 락이나 들을까요?

PC 생존 KPC 생존

엔딩보상: 집에서의 편안한 휴식

후기

개연성 뿐만 아니라 PC와 KPC를 우주로 보내버린 시나리오입니다.

그저 신화생물을 무찌르면서도 충분히 락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시나리오는 펄프 크툴루가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작성할 당시에는 펄프 크툴루 룰북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은 펄프 크툴루가 있습니다! 펄프로 개변해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락ROCK이란 뭘까요? 이렇게 신화생물과 락 배틀하는 시나리오를 썼지만 저도 그렇게 락 음악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스탠드 이름으로 아는 척 할뿐입니다.) 락의 세계는 참 넓고도 다양하더군요.

세션카드에 'GO, GO! MIGO, GO!'라는 구절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라임이 잘 맞아서 넣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당시 제가 제일 크게 당했던 신화생물이 미고였기 때문도 있습니다. (원래 부제는 GO AWAY, MIGO, GO! 였습니다.) 미고가 저의 KPC에게 그렇고 그런 악랄한 짓을 했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었던 게 제가 KPC의 오너님께 받았던 헌정 시나리오에서 였는데 (대체 왜...), 그런 밤 잠 못 잘 사건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게 이번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국 락배틀에 이겨 복수에 성공했지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럽네요.

음...엔딩 멘트를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모두 Blind Guardian의 Skalds and Shadows 들어주세요.

그럼 신화생물과의 건투를 빕니다!

2021.08.18 작성

2022.05.02 배포

추천 BGM

Judas Priest - Breaking The Law <https://www.youtube.com/watch?v=L397TWLwrUU>

Metallica - Jump in the Fire <https://www.youtube.com/watch?v=tRRA5KGaSi4>

Meat Loaf - Hot Patootie Bless My Soul

<https://www.youtube.com/watch?v=05ByiM97qDc>

Dio - Metal Will Never Die <https://www.youtube.com/watch?v=uBRsr7AAVbo>

Tenacious D - Beelzeboss (The Final Showdown) <https://youtu.be/7BkxsdESz4g>

Rhapsody of Fire - Dawn of Victory : <https://www.youtube.com/watch?v=aHolTqDXipc>

Europe - The Final Countdown <https://www.youtube.com/watch?v=NNiTxUEnmKI>

Rhapsody of Fire - Triumph for My Magic Steel

<https://www.youtube.com/watch?v=TbVnjcXpppl>

Judas Priest - Painkiller https://www.youtube.com/watch?v=kO_EdmtR5Ck

Red Hot Chili Peppers - Dark Necessities <https://youtu.be/cGI7v2tBVE8>

Lizzy Borden - Me Against The World : <https://youtu.be/txLVCYF38Mk>

Boys Like Girls - The Great Escape : <https://youtu.be/JGPgxolPY6Q>

서정적인 분위기가 흐를 때

Meat Loaf - Rock And Roll Dreams Come Through <https://youtu.be/T3lay1J87x4>